



즉시 배포용: 2020년 10월 14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** 주지사 쿠오모, 뉴욕주에서 노예 해방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

*해당 법안, 흑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자유와 업적을 기념하는 날인 노예 해방일을 기념*

Andrew M. Cuomo 주지사가 오늘 뉴욕주에서 노예 해방 기념일(Juneteenth)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(S.8598/A.10628)에 서명했습니다. 이러한 새로운 법은 노예 제도에 종말을 기념하고 흑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자유와 업적을 기념하는 날인 노예 해방일을 기념하며 모든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존중을 장려합니다.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노예 해방 기념일을 뉴욕주 직원을 위한 휴일로 인정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.

**Cuomo**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저는 미국 노예 제도의 종말을 기념하는 날인 노예 해방 기념일을 뉴욕주의 공휴일로 선언하는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. 이 새로운 공휴일은 흑인 공동체의 업적을 인식하는 하루가 될 것이며, 우리 사회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부당함에 대한 자기 반성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."

**Kevin Parker** 뉴욕주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마지막으로, 우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견뎌 온 역사적인 억압과 부당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공휴일은 뉴욕주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정함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화해와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. Cuomo 주지사님의 지지와 옹호에 감사드립니다."

**Alicia Hyndman**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"노예 해방 기념일은 흑인 자유를 향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써 역할을 합니다. 저는 Cuomo 주지사를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흑인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뉴욕주에서 계속 기념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."

노예 해방 기념일은 Abraham Lincoln 전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(Emancipation Proclamation)이 1863년 1월 1일에 발효된 이후로 2여 년이 지난 후 텍사스에 해방 소식이 알려졌던 1865년 6월 19일을 기념합니다. 주 전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Gordon Granger 소장이 연방 군대와 갤버스턴에 도착하여 일반 명령(General Order) 3호를 읽어 남북 전쟁(Civil War)의 종결 및 모든 노예가 자유하며 주 전역의 노예 소유주 사이의 해방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자신들의 자유의 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.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